

인간해방의 학문을 꿈꾸며

《지식생산·학문전략·대학개혁》 펴낸 강내희 교수

대학정책을 학문정책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기초학문만 말살하게 될 것입니다.”

강교수가 보는 우리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력 통제정책이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모순처리 과정에서 자본이 우위에 서기 위해 노동력을 과잉공급해왔다는 것이다. '고능력' 노동자의 과잉공급시대에서 '고능력' 인구양산의 틀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대학의 정상화가 최소한의 개혁조건입니다. 대학의 기능이 민주화와 공공영역으로 전환해야 해요. 이와 함께 현재의 행정중심 대학에서 학문과 교육중심의 대학으로 변해야 합니다.”

강교수의 글쓰기는 정세개입적 실천을 지향한다. 현실정치적 현안에 대한 발언과 실천을 통해 진보의 몫을 쟁취하기 위해서다. 이질적인 목소리를 뱉으로써 논의의 지평을 바꾸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강교수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인간해방의 학문이다. 문화와 학문을 둘러싼 다양한 개입지점들을 확보하려는 강교수의 실천은 이론적 글쓰기와 실천적 글쓰기를 통해 계속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적인 타락과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이론적 무기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박천홍 기자



“한국사회는 이제 지식생산양식을 변혁해야 합니다. 근대적 지식생산양식인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학은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지식생산능력을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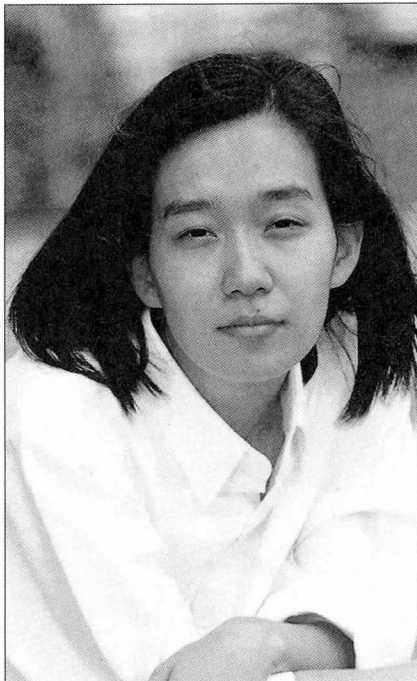
외형은 비대해졌지만 내실은 빈혈에 걸린 한국의 대학과 학문에 대한 강내희 교수(중앙대 영문학)의 비판이다. 현재 문화이론지 《문화과학》의 발행인이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겸 공동의장으로서 전위적 이론을 생산해왔던 강교수가 우리의 학문과 교육에 대한 정세개입적 성격의 글을 모아 《지식생산·학문전략·대학개혁》(문화과학사)을 펴냈다.

이 책에는 우리 사회의 교육개혁과 학문전략에 대한 실천적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강교수의 인식론적 출발점은 지식생산양식의 변모다.

“서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페미니즘·생태학·탈구조주의 등 새로운 지식생산양식에 관심을 가지게 됐지요. 지식생산기체인 대학은 분과학문체제에서 벗어나 통합적 학문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5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어 대학의 지식생산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강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안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비판한다. 개혁의 기초가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개혁의 기초인 신자유주의는 현단계 자본의 축적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대학과 학문을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발상이지요. 현재 대학입시문제로 전략한



밝은 대낮에 사는 사람들의 어둠

《검은 사슴》 펴낸 한 강씨

슬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그리는 소설가 한 강씨(28)가 첫 장편 《검은 사슴》(문학동네)을 펴냈다. 94년 서울신문에 〈붉은 닻〉으로 등단한 후 그가 발표한 작품들은 대부분 상처입은 사람들의 내면을 다뤘다. 이번 작품도 예외는 아니다. 대면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기억을 자꾸 상기시켜 읽는이를 고통스럽게 한다.

“사람들은 모두 밝은 대낮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둠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둠의 심연 속을 살아가며 햇빛 보기를 소원하지만 빛을 보는 순간 녹아버리는 중국설화 속의 ‘검은 사슴’은 그런 모든 이들의 상징이다. 기억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의선, 그녀를 찾아 떠나는 명운과 인영, 인영이 취재하기 위해 만나는 사진작가 장중욱 등 소설 속의 인물은 모두 ‘검은 사슴’들이다.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펴낸 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편은 처음이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혼자 선생이 되었다 제자도 되었다 하며 배운 게 많아요.”

연줄이 끊어지면 날아가 떨어지는 연들의 무덤 연꽃, 거리를 달리는 나신의 여자, 검은 사슴, 그리고 삶의 최전선 탄광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글을 쓰는 3년 동안 이 책은 허물이나 옷 같은 것이었다. 작가였던 아버지(한승원씨) 덕택에 책을 장난감 삼아 성장해서인지 그에게 글쓰기란 존재방식과 같다. 자연히 글을 대하는 태도가 엄격하고 결백스럽다.

젊은 작가지만 지난 3년 동안 단 4편의 중·단편을 썼을 뿐이다. 마음에서 절실하지 않은 글은 쓰지 못하는 이런 엄결성이 서사의 견고함과 장인적 치밀함으로 한

시대의 정신을 향해 정면으로 육박하는 소설’이라는 찬사를 끌어냈다. 하지만 작가로서의 소명의식과 바람은 소박하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의미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글을 씁니다.”

위로든 감동이든 자신이 책을 통해 얻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통해 느끼길 바랄 뿐이다. 등단은 시인으로 먼저 출발했지만 소설에 훨씬 매력을 느낀다. 시가 성냥불 켜는 것이고 소설이 들불 놓는 것과 비슷하다면 글쓰기가 생의 전부여서 애면글면하던 때보다 세상의 무수한 것들 속에 놓고 볼 줄 알게 된 지금, 소설이 더 사랑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결혼을 하고 나서 세상을 보는 시선이 너털해졌어요. 아이가 생기면 더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모이는 외모와는 달리 일 저지르는 데 대범하다는 한 강씨는 올 가을 일을 벌인다. 8월말부터 11월말까지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진행되는 국제문인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떠난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과의 체험이 그의 작품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 이현주 기자





20세기를 사로잡은 음악가의 삶

《전설 속의 거장》 펴낸 조희창씨

대학로에 자리한 아담한 카페 '아지오'에 20세기를 사로잡던 음악가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 이들을 초청한 사람은 카페주인이며, 《전설 속의 거장》(황금가지)을 펴낸 클래식 애호가 조희창(35)씨.

"이들은 격동의 시대 20세기를 정면으로 부딪치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음악이 빛나는 이유는 고난을 이겨낸 인간으로서의 삶과 예술가로서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창씨의 카페에 모인 음악가들은 이제 '거장'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사회·문화적 격변기를 거치며 불우한 시대를 살았다. 지휘자 브루노 발터, 피아니스트 클라라 하스킬은 나치에 쫓겨다녔고,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와 바이올니스트 나탄 밀슈타인은 러시아에서 망명한 소위 '러시아 척탄병'이었다. 프랑코정권의 압제에 일체의 연주를 거부했던 첼리스트이자 지휘자 파블로 카잘스는 스페인 민주회복을 주창하며 많은 시련을 겪었다. 독일군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피아니스트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는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에 참여했다.

개인적인 고통을 겪었던 음악가도 많다. 불에 타 죽을 뻔했던 지휘자 오토 클렘페러는 결국 반신불수가 되었고,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은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단한 삶을 살았다. 콘트랄토 캐슬린 페리어는 전화 교환수였으며, 기타리스트 안드레스 세코비아는 어린 시절 밥벌이를 위해 일을 해야 했다.

"사회적 또는 개인적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이들은 결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음악에 녹여내어 훌륭한 음악을 만들었지요."

팝 음악 DJ를 볼 정도였던 그가 클래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생 시절. 대학을 다닐 때는 고전음악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졸업 후에는 소니 뮤직에서 고전음악 담당자로 일했다. 음반을 통해서만 듣다가 음악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음악 전문지 《객석》으로 옮겼다. 클래식 전문가자로 1백명이 넘는 예술가와 만난 그는 더욱 고전 음악에 심취했다.

"음반으로 듣는 음악과 무대에서 듣는 음악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음반은 아티스트의 최고 상태를 들려줍니다만, 그의 진면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주하는 것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는 성공한 음악가의 시련과 그들이 만든 명곡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낸 《전설 속의 거장》이 클래식 입문을 위한 '참고서'로 읽히길 바란다. 음악가의 삶을 이해할 때 그들이 만든 음악을 더욱 풍부하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 음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을 펴내 아티스트와 음반을 연계하는 통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 오완진 기자



출판
중압
대행

무엇보다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국프리랜서그룹
4천여명의 전문가와 만나시면
외주비용 절감은 물론
품질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프리랜서그룹이 도와드릴 수 있는 일

- 집필 : 자서전, 기업사사, 기업홍보물, 사보, 잡지원고, 취재대행 등
- 운문 : 번역서, 창작물, 학술서, 자서전등의 각종 출판물 원고 리라이팅
- 교정 : 문학물, 전집물, 사진, 학습지, 잡지 등 출판물의 교정, 교열
- 편집 : 사보, 홍보물 등 간행물, 단행본, 잡지, 학습지의 편집 및 출력
- 번역 : 문학, 기술, 사회, 경영, 역사, 컴퓨터, 정보통신분야 등의 출판번역
- 디자인 : 표지디자인, 만화, 일러스트,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 디자인

(주)한국프리랜서그룹

서울영등포구 여의동 11-11 한서빌딩 1105호
전화 : 02-784-4447 팩스 : 784-4404

PC통신 : '재택부업 정보' go JT (천리안, 유니텔)
'프리랜서 취업정보' go FREEL (천리안, 유니텔, 하이텔)

전문인력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가 전문성의 핵심
한국프리랜서그룹에는 4천여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국프리랜서그룹은 1991년 설립된 국내최초의 전문프리랜서 매니지먼트 및 대행회사로 현실적 비용으로 최고경력자에 의한 품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